

주제어: 귀환 고려인, 제도적 배제, 문화 적응과 주변화, 정체성 협상, 초국가적 삶
Keywords: Returnee Koryo-saram, Institutional exclusion, Cultural adaptation and marginalization, Identity negotiation and Transnational experience

투 고 일: 2025. 04. 11
심 사 일: 2025. 06. 02~2025. 06. 22
게재확정일: 2025. 06. 22

“귀환 고려인”의 정착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 제도적 경계, 정체성 협상과 초국가적 삶의 교차성을 중심으로 -

손 지 혜** · 남 부 현***

목 차

- 서론
- 선행 연구 및 이론적 고찰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 결론 및 제언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이주 고려인의 한국 정착 경험을 메타에스노그래피 방법론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고려인은 민족적 기원을 공유하지만, 언어·문화·사회적 기반은 상이한 채 이주하여 제도적 차별과 사회적 낙인의 이중적 부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제도상 '재외동포'로 분류되지만, 실제 삶의 조건은 외국인과 유사하며, 이는 한국 사회 내에서 복합적이고 경계적인 존재로 위치하게 만든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국내 질적 연구 13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정착 경험을 비교·통합함으로써 경험의 공통성과 차이를 추출하였다. 분석 결과, 이주 고려인의 정착 과정은 1) 제도적 경계와 법적 불안정성, 2) 문화 적응과 주변화, 3) 정체성 협상과 세대 갈등, 4) 초국적 삶과 재이주성, 5) 지역사회와 통합 조건이라는 다섯 핵심 범주로 도출하였다. 이주 고려인은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경계적 주체로, 이들의 삶은 단순한 통합이나 동화의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 협상의 과정이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민족 통합 담론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언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C2 A02046334)

** 선문대학교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 선문대학교 글로벌한국어교육학과 부교수

어·문화 통합, 제도 개선, 지역 간 정책 조율 등 포괄적 대응을 제언한다.

I. 서론

이주 고려인은 19세기 중반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의 후손으로, 1937년 스탈린 정권의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디아스포라 집단이다(윤병석, 2005; 이상근, 2010). 소비에트 체제 하에서 약 90여 년간 정주하며 러시아어 기반의 생활문화를 형성한 고려인은, 민족적으로는 한민족의 일원으로 인식되지만, 언어와 문화, 생활양식 등은 현저히 달라지게 되었다(홍용호 외, 2019). 이들은 1990년대 이후 구소련 붕괴와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변화에 따라 점차 한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으며, 2024년 기준으로 국내 체류 고려인 수는 약 10만 명에 달하고 있다(BBC Korea, 2024).

한국 사회는 이들을 ‘이주 동포’로 수용하고 있으나, 고려인의 실제 정착 경험은 법적 지위의 불안정, 문화적 차이, 사회적 낙인 등 다양한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정진아, 2014; 김나경·선봉규, 2018). 체류 자격상 ‘재외동포’로 분류되지만, 교육, 의료, 복지 등 실질적 권리 보장에서는 외국인과 유사한 조건에 놓여 있으며, 언어 장벽과 정체성 혼란, 세대 간 갈등은 고려인의 일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남부현·박미숙, 2022; 이혜정·황명진, 2024).

이주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는 2010년대 이후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문화 적응, 정체성 형성, 제도적 차별, 지역 공동체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체로 개별 사례 분석에 집중되어 있어, 정착 경험을 구조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고려인의 정착은 단선적인 이주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경계, 문화적 소외, 정체성 재구성, 초국가적 실천 등이 중첩되는 복합적 과정이다(김기영, 2021; 박신규·이채문, 2021).

이와 같은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의 결과를 통합하고, 공통된 주제와 해석적 틀을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다문화사회의 정책적 전환과 맞물려 이주 고려인과 같은 ‘경계적 시민’(boundary citizen)

의 정착 문제를 구조적으로 조망하는 시도는 학술적·사회적 의의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질적 연구들을 메타수준에서 해석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이주 고려인의 정착 경험을 재구성하고,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질적 메타분석, 특히 메타에스노그래피(meta-ethnography; Noblit & Hare, 1988) 방법론을 활용하여, 이주 고려인의 정착 경험을 다른 국내 질적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 고려인이 경험하는 법적 제약과 제도적 차별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둘째, 언어, 문화, 정체성의 교차 지점에서 나타나는 적응과 차별의 양상을 통합하여 해석할 것이다.

셋째, 고려인을 ‘민족적 이주자’가 아닌 초국가적 정체성을 지닌 주체로 재조명함으로써, 기존의 통합 담론과 정책적 전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개별 사례를 기술하는 기존 질적 연구들의 단순한 종합에서 나아가, 메타에스노그래피 방법론을 활용하여 각 연구 간의 해석적 상호작용(translational synthesis)을 통해 귀환 고려인의 정착 경험을 보다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별 연구가 놓친 다양한 삶의 맥락들(제도적 한계, 정체성 협상, 초국적 생활세계 등)을 상호 연결하고, 기존의 단편적 논의를 넘어서는 통합적이고 다층적인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 연구 결과의 단순한 요약 넘어서 새로운 이론적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및 이론적 고찰

1. 이주 고려인 정착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이주 고려인은 제도적 포섭, 문화적 적응, 정체성 협상, 초국가적 삶, 지역사회 정착 등 다차원적인 조건 속에서 국내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내 질적 연구는 2010년대 이후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이들 연구는 고려인의

삶을 다양한 층위에서 조명하고 있으나, 개별 연구에 머무는 경향이 강하며, 상호 간의 개념적 연계성과 종합적 해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된다(김기영, 2021; 박신규·이채문, 2021). 본 절에서는 향후 분석의 기반이 되는 다섯 가지 주요 해석 범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주 고려인의 정착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문제는 체류 자격에 기반한 제도적 경계와 사회권의 제한이다. 남부현과 박미숙(2022)은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고려인 가정이 교육, 의료, 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제도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들은 ‘동포’라는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는 외국인과 유사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며, 제도 내·외부의 모순 구조가 정착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유사한 맥락에서 김나경과 선봉규(2018)는 고려인 청소년이 ‘한국인도 러시아인도 아닌’ 상태로 규정되는 이중적 체류 조건 속에서 언어·문화·제도 모두에 소외감을 느낀다고 지적하였다.

문화 적응은 이주 고려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핵심 주제이다. 이은정(2015)은 고려인 청소년의 생애사를 분석하며, 가정 내 러시아어 사용과 사회 내 한국어 사용 간의 긴장이 개인의 정체성과 문화 실천에 구조적 불일치를 초래함을 밝혔다. 김기영(2021)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 적응 경험을 통해, 고려인의 일상은 단순한 문화 이입이 아니라, 언어, 습관, 가족 내 규범 등을 둘러싼 지속적인 선택과 협상의 과정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고려인의 문화 적응을 ‘일방향적 통합’이 아닌 ‘상호 구성적 실천’으로 해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주 고려인의 정체성 협상은 문화와 제도, 개인적 경험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홍숙영(2017)은 고려인의 이주 서사를 분석하며, 이들이 본국 사회에서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험 속에서 자기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밝혀냈다. 이는 고려인이 한국과 중앙아시아 사이의 상징적·사회적 경계에 위치하며, 복수적 정체성을 구성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해준다. 또한 이해정과 황명진(2024)은 이주 고려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생애사 연구에서, 이들이 이주 이후에도 ‘이방인’으로 간주되며, 세대 내·세대 간 정체성 구성 양상이 상이하게 전개된다고 분석하였다.

일부 연구는 이주 고려인을 초국가적 이주민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박신규와 이채문(2021)은 경주 성건동 고려인 집거지를 사례로, 이들이 주류 사회와의 직접적 연결보다 자체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권을 구성하며, 언어, 상점, 종교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 내 사회’를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구조는 고려인이 한국사회에 ‘완전한 통합’을 지향하기보다, 중앙 아시아에 대한 감정적 귀속과 가족망을 유지하며 초국가적 생활세계(transnational lifeworld)를 구성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고려인의 정착 실천이 특정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임영상 외(2020)는 안산 선부동과 시흥 정왕동의 고려인 밀집 지역을 분석하며, 노아네 러시아학원, 고려인센터 미르, 시온선교교회 등이 언어교육, 자녀 돌봄, 공동체 연대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고려인이 지역사회 내 자생적 인프라를 구축하며 정착을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국가 정책의 한계를 상보하는 ‘자조적 통합’의 실천적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이주 고려인의 정착 경험을 다양한 차원에서 조명하고 있으나, 연구 간 연계성이 약하고 분석틀이 분절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질적 연구를 메타분석을 통해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교차되는 주제와 개념들을 재구조화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이론적인 통찰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 이주 고려인 연구 동향

국내 이주 고려인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는 고려인의 한국 내 재정착 증가와 더불어 사회통합, 다문화주의, 언어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제 간 연구의 대상으로 부상한 데 기인한다. 초기 연구가 주로 역사적 맥락이나 이주의 배경 설명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생애사, 지역사회 적응, 정체성 형성, 언어와 문화 갈등, 가족관계, 미디어 재현 등으로 주제가 다변화하고 있다.

먼저 이주 이주와 정착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는 고려인 이주민의 내러티브와 생애사를 통해 개인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유진 외(2024)는 고려인 청년의 생애사를 생태 환경적으로 접근하여, 언어 장벽, 가족

해체, 사회적 낙인의 극복 과정에서 회복 탄력성과 정체성 혼종화의 가능성을 조명하였다. 이해정과 황명진(2024)은 이주 청년의 정착 경험을 로젠탈의 생애사 분석틀로 풀어내며, 제도적 한계와 사회적 배제를 중심으로 경계 넘기의 연속적 과정을 밝혀냈다. 또한 이남주와 권정아(2017)는 이주 고려인 부부의 적응 경험을 분석하며, 정착이 단선적 적응이 아니라 갈등과 후회를 포함한 다단계의 삶의 여정임을 설명하였다. 이는 고려인 정착 경험의 내적 역동성과 구조적 조건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사례이다.

가족 단위 이주자 및 아동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선미(2019)는 고려인 기혼 남녀의 삶의 질과 가족건강성을 분석하여, 자아 존중감, 건강상태, 언어 능력, 가족 응집력이 중요한 결정요소임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채영란과 박한아(2024)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고려인 아동 연구 62편을 분석하여, 초등학교 중심, 정착 및 언어 적응 중심, 질적 연구 편중이라는 동향을 지적하였다.

언어 및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연구는 이주 고려인의 사회적 소속감, 정체성 구축, 교육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김미정과 신우봉(2024)은 고려 청소년과 청년의 한국어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언어 능력이 사회 통합과 자아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신예원 외(2023)는 2000년대 이후 언론 사설을 대상으로 비판적 담론분석을 수행하여, 한국 사회가 고려인을 ‘피해자 디아스포라’, ‘이주형 노동이주자’ 등으로 주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지역사회 및 공동체 차원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최아영(2024)은 안산시 고려인 밀집지역의 공공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적 자본 작동 방식을 분석하며, 연계형 네트워크의 부족과 정책 협력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고가영(2024)은 광주 고려인마을의 발전 단계를 제도화기(2013년-2016년), 공론화기(2017년-2021년), 다문화화기(2022년-2024년 현재)로 구분하고, NGO 주도형 모델의 장점과 지속가능성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였다.

이처럼 국내 고려인 연구는 단순한 이주·정착 서사에서 벗어나, 정체성의 교차성, 언어 권력, 담론 재현, 초국적 공동체 형성 등으로 분석 지평을 확장해 왔다. 동시에, 세대 간 차이, 여성·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지역적 불균형, 제도적 차별 등의 구체적 문제들을 다루는 방향으로 심화하고 있다.

3. 이주 이민자(Returnee Migrant)

라몽과 몰나르(Lamont and Molnár, 2002)는 상징적 경계와 사회적 경계를 구분하며, 상징적 경계는 사회 구성원들이 사람, 사물, 관행 등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적 구별로, 이는 집단 간의 유사성과 소속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며, 사회적 경계는 불평등한 자원 분배와 사회적 기회를 나타내는 객관화된 사회적 차이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경계는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민자는 거주국에서 형성된 상징적 경계를 새로운 환경에 적용하며, 이는 새로운 사회의 기존 경계와 상호작용하여 사회통합이나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춘수와 이윤주(2024)는 고려인이 제도적으로 동포로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규제 아래 놓이며, 고용 및 거주지 선택, 사회복지 접근 등에서 차별적인 처우를 받는다고 지적한다. 세레이즈(Cerese, 1974)는 이탈리아로 이주한 이민자 후손 사례를 거주국 사회에 통합하지 못해 이주한 ‘실패형(Return of failure)’, 자산 확보를 위해 모국으로 이주한 ‘보수형(Return of conservatism)’, 단순히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이주한 ‘은퇴형(Return of retirement)’, 경제적 계층 상승을 위한 ‘혁신형(Return of innovation)’으로 구분하였고, 이주 이민자는 거주국과 출신국에서 경제적 위치를 갖는다고 결론지었다. 쓰다(Tsuda, 2000)는 일본으로 이주한 브라질 출신의 니케이진을 경계인으로 규정하며, 완전히 일본인도 브라질인도 아닌 위치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이중적 정체성과 주변화된 존재로 정의하였다. 더불어, 이들의 이주는 새로운 경계 정체성의 구성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이주 고려인의 사례에서 경계는 민족적 동질성과 법적·문화적 이질성 간의 충돌에서 발생하며, 이들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언어 능력, 생활 방식, 외모, 교육 배경 등에서 차이를 지닌 ‘경계적 타자’로 위치화된다. 김태원(2017)은 짐멜(Zimmer)의 ‘이방인’ 개념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하며, 이방인이 지닌 혼종성, 사회적 상호작용, 정착과 유랑의 이중성을 이주민의 다중적 정체성과 사회통합에 대한 의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및 방법론적 접근

본 연구는 이주 고려인의 정착 경험을 다룬 기존 질적 연구를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통된 주제와 개념을 도출하고 해석적 통찰을 생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질적메타분석(qualitative meta-synthesis), 그 중에서도 메타에스노그래피(meta-ethnography) 접근을 채택하였다(Noblit and Hare, 1988).

질적메타분석은 기존의 질적 연구 결과를 단순 나열하거나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주제를 추출하고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적 틀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Thomas and Harden, 2008). 이는 다양한 맥락에서 수행한 개별 연구들을 해석적으로 통합하여, 단일 사례연구에서 도출되기 어려운 보다 보편적이고 이론화된 통찰을 가능케 한다(Zimmer, 2006). 메타에스노그래피는 특히 문화적, 사회적 현상에 대한 해석적 접근에 적합하며, 질적 비교분석, 근거이론과 함께 대표적인 질적 메타분석 방법으로 분류된다(나장함, 2008).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메타에스노그래피는 개별 질적 연구의 독립적 분석을 넘어, 여러 연구 간의 해석적 상호작용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즉, 기존 연구들이 다루는 각각의 사례와 주제를 상호 비교하고 ‘번역(translational synthesis)’하여 귀환 고려인의 다양한 정착 경험이 교차되는 복합적 맥락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개별 질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귀환 고려인의 제도적 제약, 문화 적응 과정, 정체성 협상 및 초국적 삶의 역동적 연결을 명확히 포착할 수 있으며, 결국 기존의 개별적 연구에서 놓친 새로운 이론적 통찰을 창출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분석 대상 문헌 선정 및 기준

분석 대상 문헌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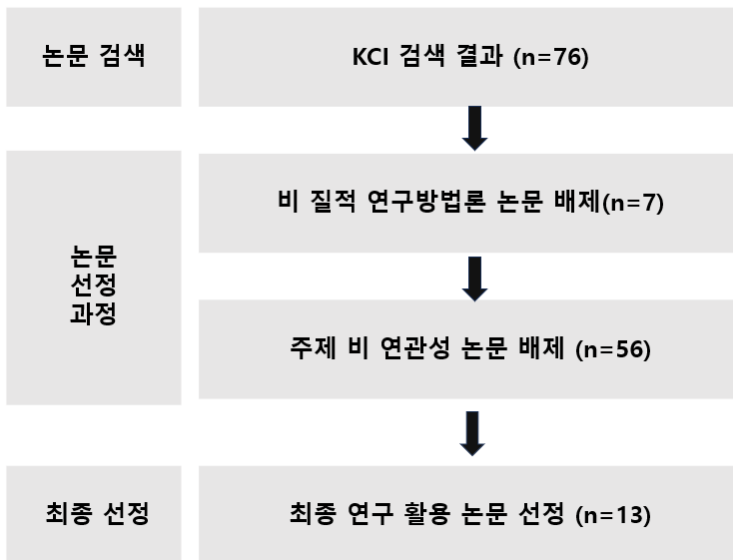
첫째, 연구 주제는 ‘이주 고려인의 정착 경험’을 중심으로, 제도적 정착, 문화 적응, 정체성 구성, 지역 공동체 실천, 국가적 삶 등을 다룬 연구를 탐색

하였다.

둘째, 연구 방법은 질적 접근(면담, 생애사, 참여관찰 등)을 채택한 논문으로 제한하였다.

셋째, 출판 범위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로 국내 KCI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국내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KISS, RISS, DBpia)를 중심으로 검색하였고, 연구자 간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13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각 논문은 분석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이중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착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논문은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 선정 과정은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연구 대상 선정 과정



선정한 문헌들은 주제, 제목, 저자 키워드, 연구방법론, 출판년도 순으로 구분하였고, 해당 문헌들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은 본 연구의 분석 핵심 자료로 활용하였고, 교차 해석을 통해 이주 고려인의 정착 경험을 구조화 하는 토대가 되었다.

[표 1] 연구를 위한 분석 자료 목록 (2010-2024)

번호	주제	제목	저자	키워드	연구 방법론	출판 년도
1	거주지 특성과 정책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 이주 고려인의 이주배경과 특성	김재기	고려인, 이주동포, 광주, 언어정체성, 정책 방안	혼합연구	2014
2	이주민 가족 사례 연구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이주이주 - 대구지역 고려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은정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이주이주, 재외동포, 결혼이주	질적연구	2015
3	문화적응과 고려인 청년	한국거주 고려인청년의 문화적응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남혜경, 이미정	고려인청년, 문화적응요인, 정체성, 음식문화, 수직적 조직문화	질적연구	2016
4	이주의 서사와 정체성	고려인의 이주와 이주의 내러티브 탐색	홍숙영	고려인, 이주이주, 내러티브, 정체성, 고려인 특별법	질적연구	2017
5	청소년 고려인 실태	한국 거주 고려인동포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나경, 선봉규	고려인동포 청소년, 생활실태, 재외동포법, 법적지위, 언어생활	질적연구	2018
6	정체성과 청소년	이주 재외한인청소년의 유형별 이주특성과 정체성 형성 분석	박신규	이주이주, 재외한인청소년, 조선족, 고려인, 종족성, 노마드 정체성	질적 연구	2020
7	지역사회와 고려인 동포	경기도의 '이주'동포 사회와 한국살이: 안산시와 시흥시	임영상, 림 학, 주동완	중국동포, 고려인, 중도입국자녀, 안산, 시흥, 이중언어교육	사례 기반 지역사회 연구	2020
8	지역 정착 실태	이주이주자로서 고려인의 지역사회 생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박신규, 이채문	경주, 고려인, 민족이주이주, 한국어 교육, 돌봄지원	혼합 연구	2021
9	사회경제적 분화와 정착	고려인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분화에 따른 한국사회 편입 방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	서대승	고려인, 사회경제적 분화, 거주지 분화, 이주자 편입	질적 연구	2022
10	정책과 가족 이주	고려인 가족단위 이주자들 중심의 지원 정책 연구: 함박마을을 중심으로	장안리, 박미화	국내 거주 고려인, 가족연쇄이주, 함박마을, 조례, 이주동포	질적 연구	2022
11	정체성과 세대별 혼란	고려인 이주 동포의 민족정체성 연구 - 3	김춘수, 김정수	이주 고려인, 민족 정체성, 언어, 국	질적 연구	2023

번호	주제	제목	저자	키워드	연구 방법론	출판 년도
		~4세 이주동포를 중심으로 -		적, 혈통		
12	청년 고려인의 생애사	고려인 청년의 이주 이주 후 재정착과정에 대한 생애사 연구	이혜정, 황명진	고려인, 이주 이주, 청년, 생애사, 정체성	질적 연구	2024

본 연구는 질적 연구 결과들을 통합·재해석하여 특정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출하고자 하는 질적 메타분석(qualitative meta-synthesis)방법론에 근거하였다. 질적 메타분석은 단순한 연구 결과의 요약이 아니라, 각 연구에 내재된 의미를 해석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개념적 통찰을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Noblit and Hare, 1988; Sandelowski and Barroso, 2007). 특히, 본 연구는 메타에스노그래피 접근을 중심으로 설계하였고, 이는 노블릿과 헤어(1988)가 제안한 7단계 분석 절차를 따랐다. 구체적으로는 ① 주제 선정, ② 관련 연구 탐색, ③ 포함 기준 설정, ④ 주요 개념 추출, ⑤ 연구 간 관계 파악, ⑥ 통합적 해석 도출, ⑦ 종합적 서술의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방법론적 틀은 ‘구성주의적 패러다임(constructivist paradigm)’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현실을 단일하고 보편적인 실체로 보기 보다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Lincoln and Guba, 1985). 구성주의적 관점은 연구자의 역할이 객관적 관찰자가 아니라, 기존 질적 연구들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고 상호 텍스트로 연결 짓는 해석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귀납적이고 해석적인 분석 과정을 통해, 복수의 시선과 의미들이 교차하는 다층적 해석 공간을 구성하고자 하였다(Walsh and Downe, 2005). 질적 메타분석의 주요 목표는 개별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양적 합산을 의미하는데 있지 않으며, 서로 다른 맥락에서 생산한 질적 자료들이 공유하는 핵심 개념과 의미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이론적 시야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Sandelowski et al., 1997).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연구의 원래의 맥락을 존중하면서, 해석적 통합을 통해 기존 담론의 확장과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해석적 개입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연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석의 절차와

선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Atkin et al., 2008). 이 과정을 통해 추출한 분석 절차는 [표 2] 와 같다.

[표 2] 해석절차에 따른 질적 메타합성을 위한 분석기준

단계	분석절차	본 연구의 적용 내용	구체적 해석 기준/ 산출물
1단계	주제 선정 (Getting started)	이주 고려인의 국내 정착 경험을 중심으로, 정체성, 제도, 문화, 초국가적 특성 등의 복합 문제 탐색	- '이방인', '경계인', '종족적 동질감, 문화적 이질감'으로서의 이주 고려인 위치 조명 - 제도적 경계 밖, 적응 실패로 인한 반복되는 초국가적 이주
2단계	관련 연구 탐색 (Deciding what is relevant)	2010-2025년 KCI 등재 논문 76편 중 질적 연구 13편 최종 선정	- '이주 고려인', '국내 거주 고려인' 과 관련된 국내 거주 대상 질적 연구에 한정 ¹⁾ - 심층 인터뷰, 생애사, 내러티브 등 질적 방법론 활용 논문 포함
3단계	포함 기준 설정 (Reading the studies)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맥락 등을 분석하여 질적자료 충실한 논문만 선정	- 국내 거주 고려인 대상 - 다양한 하위 집단 포함 (청소년, 학교, 가족, 지역 커뮤니티 등)
4단계	주요 개념 추출 (Determining how studies are related)	각 논문에서 핵심 키워드 및 범주 도출	- 범주: ① 제도적 경계 및 소외와 법적 불안정성 ② 문화 적응과 주변화 경험 ③ 정체성 협상과 세대 갈등 ④ 초국적 삶과 재 이주성 ⑤ 지역사회와 통합의 조건
5단계	연구 간 관계 파악 (Translating studies into one another)	개념 간 상호보완, 대립, 확장 관계 분석	- 정체성 협상이 초국적 경험과 교차함 - 제도적 차별이 문화적 주변화와 연결됨 - 역사적으로 얽힌 유목민적 정체성 - 집단보다 개인이 앞서지만, '고려인'의 동질성으로 커뮤니티 형성
6단계	통합적 해석 도출 (Synthesizing translations)	정착 경험의 해석 모델 형성	- 이주 고려인을 "경계적 주체", "제도 내 디아스포라", "문화적 타자"로 재개념화 - 단선적 통합이 아닌 유동적 정체성 강조
7단계	종합적 서술 (Expressing the synthesis)	분석 결과를 통합적으로 서술하고 정책 제안 도출	- 정책 제안: 법제도 개선, 맞춤형 언어·문화교육, 세대 간 문화 중재, 디지털 커뮤니티 지원, 지역 정책 일관성 등

1) 김재기(2014)의 연구는 혼합연구임에도 질적분석을 수행하여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음.

3. 메타에스노그래피 7단계 분석 절차

본 연구는 노블릿과 헤어(1988)가 제시한 7단계 메타에스노그래피 절차를 적용하였다. 메타에스노그래피는 개별 질적 연구의 해석을 단순하게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간의 ‘상호 번역(translating studies into one another)’을 통해 새로운 ‘해석적 통찰(interpretative synthesis)’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andelowski and Barroso, 2007; Walsh and Downe, 2005).

1단계의 주제 선정(Getting Stared)은 연구의 출발점이 이주 고려인의 정착 경험을 기존의 ‘조국 이주자’라는 민족주의적 서사에서 벗어나, 제도, 문화, 정체성의 경계와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경계인의 주체로 재규정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고려인을 이방인, 노동자, 문화적 이질성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본 연구는 이들의 정착이 정치·제도·문화·사회적 요소가 교차하는 복합적 삶이라는 전제를 설정하였다.

2단계는 관련 연구 탐색(Deciding What is Relevant)로, 분석 자료는 KCI, RISS, DBpia에 등재된 국내 학술지 논문 76편 중 ‘이주 고려인’, ‘재한 고려인’, ‘국내 거주 고려인’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된 문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고, 실제 국내 거주 이주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13편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는 메타에스노그래피의 핵심 전제 중 하나인 동질적인 현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기반 작업이다(Noblit and Hare, 1988).

3단계는 포함 기준 설정(Reading the Studies)이다.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이 실제 국내 거주 이주 고려인일 것, (2) 심층 면담, 생애사, 서사 분석 등 질적 접근을 활용했을 것, (3) 정착, 정체성, 제도 경험, 문화 적응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 삶의 맥락을 조명할 것. 이는 Sandelowski 외(1997)의 제안처럼, 단순한 질적 결과 요약이 아닌 맥락적 해석을 위한 연구 선정 기준에 기반한 것이다.

4단계는 주요 개념 추출(Determining How the Studies are Related)으로 각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도출되는 개념과 주제를 귀납적으로 추출하고, 이를 상위 범주로 통합하였다. 이 과정은 연구 간 키워드와 핵심 범주를 비교·정렬

함으로써, 다음의 5개 핵심 범주가 도출되었다. 1. 제도적 경계 및 소외와 법적 불안정성, 2. 문화 적응과 주변화 경험, 3. 정체성 협상과 세대 갈등, 4. 초국적 삶과 재이주성, 5. 지역사회와 통합의 조건 등이다. 이는 노블릿과 헤어(1988)가 강조한 개념 간 관계의 맥락적 탐색에 해당하며, 연구 간 공통성과 변이성을 반영한 해석적 범주화이다.

5단계는 연구 간 관계 파악(Translating the Studies into One Another)인데, 도출된 범주 간의 연계성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각 연구의 개념을 다른 연구의 맥락에 적용·번역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예컨대 ‘언어 장벽’은 단순한 소통의 어려움을 넘어, ‘문화적 주변화’와 ‘정체성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착의 불안정성’은 법적 자격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수용성, 복지 접근성, 정책 인프라 등 구조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도 사회통합의 의지 결여와도 연결이 가능하였다. 이는 메타에스노그래피의 핵심 기법인 ‘상호 번역(translational synthesis)’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Noblit and Hare, 1988; Atkins et al., 2008).

6단계는 통합적 해석 도출(Synthesizing Translations)로 이전 단계에서 추출된 범주와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이주 고려인의 정착 경험을 설명하는 해석적 모델을 구축하였다. 모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적 시각의 관점에서 구성하였다. 1. 이주 고려인은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경계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체이다(Hall, 1990; Ting-Toomey, 1999), 2. 정착은 제도적 수용과 문화적 통합의 선형 과정이 아니라, 정체성 협상, 재이주 가능성, 초국적 연결성이 중첩된 역동적 과정이다(Glick Schiller et al., 1992), 3. ‘이주’는 상징적 귀속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사회적 포섭은 미비하여 귀속의 역설적 실패가 발생한다(Tsuda, 2003; Christou, 2006).

7단계는 종합적 서술(Expressing the Synthesis)로 최종적으로, 도출된 해석과 범주를 통합하여 본 논문의 분석 결과로 서술하였다. 이는 단순한 이주의 서사를 넘어, 정체성, 제도, 문화, 초국가성, 지역사회의 교차적 맥락을 담은 설명적 서사로 구성되었으며, 정책적·학문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상의 절차는 해석자 중심의 구성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며(Lincoln and Guba, 1985), 질적 메타분석이 제공하는 해석적 통합의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메타에스노그래피 방법을 적용하여 기존 질적 연구들을 상호 비교·통합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개별 연구의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지 않고, 연구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상호 보완적 측면을 중심으로 명확히 기술하였다(Noblit & Hare, 1988). 또한, 메타에스노그래피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별 연구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귀환 고려인의 정착 경험의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맥락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고, 이로써 기존의 연구가 제공하지 못한 새로운 이론적 통찰을 도출하고자 하였다(Walsh & Downe, 2005; Thomas & Harden, 2008).

[표 3] 연구대상의 카테고리 별 범주 및 내용 분석

논문 번호	저자 (연대)	범주	주제	세부내용
1	김재기 (2014)	제도	제도적 경계와 법적 불안정성	지자체 정책 간 편차 존재. 일부 지역은 단순 노동력으로 간주하며 정착 지원 미흡.
		지역사회	지역사회와 통합의 조건	광주 사례, 정책과 커뮤니티 인프라 간 불균형. 공공 지원 미흡.
2	이은정 (2015)	초국적	초국적 삶과 재이주성	고려인의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이중 문화 속 정체성 재구성.
3	남혜경 · 이미정 (2016)	문화	문화 적응과 주변화 경험	청년 고려인, 일상생활에서 조직문화·음식 문화 등 이질감. 주변화 경험.
		정체성	정체성 협상과 세대 갈등	가족 내 문화 계승 단절, 세대 간 가치관 충돌. 정체성 갈등 겪음.
4	홍숙영 (2017)	문화	문화 적응과 주변화 경험	고려인은 ‘낮선 동포’로서 반복적 차별 경험. 사회적 낙인 발생.
		정체성	정체성 협상과 세대 갈등	‘한민족’ 정체성과 실제 사회적 배제 사이 간극에서 정체성 혼란 겪음.
5	김나경 · 선봉규 (2018)	제도	제도적 경계와 법적 불안정성	재외동포법의 제한으로 청소년의 법적 지위 불안정. 교육권 문제 시급.
		문화	문화 적응과 주변화 경험	언어 장벽으로 학업 성취도·또래 관계 형성 어려움. 문화적 소외감.
6	박신규 (2020)	제도	제도적 경계와 법적 불안정성	이주 고려인 정체성 다각적 탐색.
		정체성	정체성 협상과 세대 갈등	유목적 정체성 강조. ‘고려인’으로 규정되길 거부하는 주체적 인식 부각.

논문 번호	저자 (연대)	범주	주제	세부내용
		초국적	초국적 삶과 재이주성	이주는 완결이 아닌 과정. 재이주 현상 존재.
7	임영상 외 (2020)	제도	제도적 경계와 법적 불안정성	안산·시흥 지역의 제도적 수용 환경 분석.
		초국적	초국적 삶과 재이주성	출신국과의 정서적 연계, 지역사회 연결 유지.
		지역사회	지역사회와 통합의 조건	이중언어 교육, 민간 지원 네트워크 강조.
8	박신규· 이채문 (2021)	제도	제도적 경계와 법적 불안정성	경주 지역의 복지 자원 부족, 제도 공백 지적.
		초국적	초국적 삶과 재이주성	복수 국적 정체성, 사회적 연결 유지.
		지역사회	지역사회와 통합의 조건	‘사회 내 사회’ 형성 및 자조적 적응.
9	서대승 (2022)	지역사회	지역사회와 통합의 조건	사회경제적 자원에 따라 정착 차이 발생.
10	장안리· 박미화 (2022)	제도	제도적 경계와 법적 불안정성	가족 단위 이주의 제도 사각지대 존재.
		지역사회	지역사회와 통합의 조건	자생적 복비망 형성, 조례 부족 문제 지적.
11	곽민정· 함보연 (2023)	제도	제도적 경계와 법적 불안정성	제도·정책 전반에 대한 메타분석 포함.
		문화	문화 적응과 주변화 경험	문화적 타자화와 주변화 반복 지적.
		정체성	정체성 협상과 세대 갈등	3·4세대 고려인의 이중 정체성.
		초국적	초국적 삶과 재이주성	다문화 이주의 지속성과 초국가적 존재 탐색.
		지역사회	지역사회와 통합의 조건	지역 간 정책 불균형 및 다문화 수용성 분석.
12	김춘수· 김정수 (2023)	정체성	정체성 협상과 세대 갈등	세대 간 정체성 협상, 자기서사 생성.
13	이혜정· 황명진 (2024)	제도	제도적 경계와 법적 불안정성	F-4 비자 제한성과 불안정한 체류 자격 지적.
		문화	문화 적응과 주변화 경험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 소외와 학교 부적응.
		초국적	초국적 삶과 재이주성	소셜네트워크(SNS) 기반 초국적 정서 공동체 유지.

1. 제도적 경계와 법적 불안정성

이주 고려인의 한국 정착 경험에서 가장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핵심 문제는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과 제도적 경계의 작동이다. 이들은 외형적으로는 ‘동포’라는 상징적 정체성을 부여받지만, 실제 법적 체계 내에서는 H-2(방문취업) 또는 F-4(재외동포) 비자 체계를 통해 제한적 권리만을 부여받으며, 사회권, 교육권, 복지권 등 실질적인 시민적 권리의 행사에는 제약 받고 있었다. 이러한 법 제도의 구조는 이주 고려인을 실질적 외국인과 유사한 조건으로 포섭하며, 그들의 정착 과정을 제도 내부에서의 경계적 삶으로 위치시킨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김재기(2014), 김나경 · 선봉규(2018), 박신규(2020), 임영상 외(2020), 박신규 · 이채문(2021), 장안리 · 박미화(2022), 광민정 · 함보연(2023), 이해정 · 황명진(2024)의 논문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이들 연구는 제도적 차별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분석 대상, 지역 맥락, 제도 수용 태도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점은, 이주 고려인이 보유한 체류 자격 자체가 정착의 안정성을 제약하며, 사회통합의 기회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됨을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박신규(2020)의 연구는 거주국에서의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인한 가족 해체가 결국 무계획적 이주로 이어져 한 가족이 이주하더라도 비자 유형이 달라 거주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상화이 안 좋아 엄마가 한국으로 일하러 나오고, 나는 누나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누나도 취업비자 받아서 한국 오고 나도 나오고, 나는 유학생 신분으로 있어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김재기(2014) 연구의 응답자 또한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조국에 돌아와 살기로 마음먹고 자녀를 데려왔지만, 아들 비자문제로 생활고가 깊어질 것 같다.”

김나경과 선봉규(2018)는 고려인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과 진학에서 ‘서류상의 존재’로 간주되며, 이는 자아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 소속감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4세대 이상인 경우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들은 재외동포 자녀임에도 외국인 신분으로 거주할 수밖에 없으며, 학령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출국해야 하는 모순적인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박신규와 이채문(2021) 또한, 경제 지역 고려인들이 지역사회 복지체계에서 소외되어 민간 자원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적 현실을 드러냈다.

“어린이집 아주 비싸요. (중략). 알다시피 저희 애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도 한국 사람들이 내는 돈의 2배는 내야 해요. 유치원도 제한이 있어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장안리와 박미화(2022)의 연구 참여자도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인천 거주 고려인의 양육비 지출이 소득에 턱 없이 부족하여 자녀 양육비 지급을 위해 쉬는 시간 없이 일 해야 하는 구조를 설명하였다.

“지금 아기 둘이니까. 둘째 지금 어린이집 가면 100만원인데, 한 달에 기본으로 나가는 돈이 버는 돈 보다 많잖아요.”

곽민정과 함보연(2023)은 체류 비자 전환 시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자산이 어느정도 준비되어야 가능하며, 단순 노동에 의존하는 경제활동 구조에서 만성적인 의료비와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체류자격의 전환이 쉽지 않음을 지적한다.

“내가 지금 H2잖아요. F4로 바꾸게 되면 어떤 공부 필요해요. 그 다음에 F4에서 F5까지 하게 되면, 은행에 자기 통장에 한 3천만원 있어야 해요.”

임영상 외(2020)는 안산·시흥 지역의 사례에서 이중언어 교육 및 고려인센터 운영 등의 실천적 시도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센터에서 한국어도 배울 수 있고,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분석한 8편의 연구를 종합하면, 이주 고려인의 제도적 정착 경험은 단지 법률적 신분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 권리 주체성, 제도 신뢰, 일상적 행위의 제약까지 포괄하는 문제임이 드러난다. 체류 자격에 따른 불안정성은 복지 및 교육 자원의 접근성을 제약하고, 이를 통해 이주 고려인을 ‘제도 내 외부자’의 위치로 자리잡게 된다.

특히, 지역 간 정책 역량의 차이는 법률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는 이주 고려인 간에도 정착 조건과 삶의 질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이는 단일한 법제도적 개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다층적 문제이며, 정책의 현장 실행력, 지역사회 포용성, 다문화적 감수성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문화 적응과 주변화 경험

이주 고려인의 문화 적응은 단순한 문화 차이의 극복이나 개인의 태도 변화로 환원될 수 없다. 이들은 언어, 교육, 관습, 사회 규범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문화적 이질감과 주변화(marginalization)를 경험하며, 한국 사회의 통합 논리로부터 소외되거나 조건부로 수용되는 위치에 놓인다. 이러한 문화 적응 과정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인’이라는 민족적 동질성 위에 구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제도와 사회의 구조적 장벽으로 인해 ‘다른 한국인’으로 주변화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주제를 핵심 범주로 다룬 이은정(2015), 홍숙영(2017), 김나경·선봉규(2018), 박신규(2020), 박신규·이채문(2021), 김춘수·김정수(2023) 문헌을 분석하였다. 이 자료들은 결과적으로 문화 적응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지역적 맥락, 대상 특성, 분석 시각에 따라 해석의 깊이와 방향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는 이주 고려인의 한국어 미숙과 제도 및 문화 환경의 이질성이 이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적응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이다. 김나경과 선봉규(2018)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학교 내 정체성 위기와 학습 부진, 또래 관계 단절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의 한 연구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

였다.

“나는 말할 때마다 애들이 ‘왜 그렇게 말하냐’고 웃어요. 선생님도 교과서 읽을 때 내가 틀리면 표정이 달라져요”

이 사례는 언어 능력 부족이 단순한 학습 문제를 넘어 ‘존재 자체의 문제화’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문화적 이질감은 학업 실패와 또래 단절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자기 위축과 소속감 상실로 확대됨을 발견할 수 있다.

홍숙영(2017)은 이주 고려인이 ‘동포’라는 상징 아래 외형적 유사성은 갖추고 있지만, 언어적 억양, 표현 방식, 습관 등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일 경우, 제도와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지속적으로 타자화 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국어를 잘 하는 고려인은 우호적으로 보고, 고려인에 대해 좋게 보는 사람과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반반이죠. 고려인은 쉬는 날에 술을 많이 마시고 싸우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안 좋게 보죠.”

이 언급은 이주 고려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타자화의 미묘한 감정 작용을 드러내며, 외형과 내면의 괴리가 만들어내는 긴장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이혜정과 황명진(2024)의 연구 참여자는 청소년 시기 우연한 기회를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 갖고, 개인의 노력과 가족의 지지, 한국 정부 지원으로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체성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한국 입국 이후 언어적 한계, 문화 차이, 구조적 차별과 법적 불안정성으로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주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는 심리적인 위축으로 이어지며, 개인의 정신건강에 위협을 느끼는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

“괜찮아. 6개월만 참아. 집으로 가지마, 바보니? 한국까지 왔잖아.”

“그 한 달 진짜 진짜 5년 동안 제일 힘들었어. 잊을 수 없는 시간이야. 진짜 다시 러시아에 돌아가고 싶었어. 난 그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한국어도 잘 모르고 마음도 무서워. 그때 밤에 인터넷에서 내 증상을 찾아봤어.”

문화 적응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분석 대상의 연령, 지역, 연구의 이론적 초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남혜경과 이미정(2016)은 고려인 청년층의

직장생활을 중심으로, 조직문화 적응과 식사 예절, 언어 표현 등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문화 충돌을 분석하며, 문화 적응을 관계 속 감정 정치의 과정으로 해석하였다.

“고려인 아니고 한국인? 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저는 우즈벡 사람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곽민정과 함보연(2023)은 문화적응 문제를 제도적 차별, 정체성 혼란, 지역 사회 수용성 등과의 교차점에서 구조화된 차별 메커니즘으로 재해석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은 연구자의 분석 시선과 대상자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문화 적응이 개인 차원의 문제로 축소되거나, 구조적 문제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주 고려인의 문화 적응 경험은 단지 새로운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지속적 증명과 조정의 실천이다. 언어, 표정, 말투, 생활 습관까지 한국식 표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체성이 의심받고, 이로 인해 이주 고려인은 일상적 감정 노동과 정체성 협상의 반복 속에 놓인다. 실제로 이은정(2015)의 연구에 나타난 한 연구 참여자는 한국인과의 혼인 과정에서 ‘단일민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한국인과 고려인에 대한 민족적 동일시를 전제하였고, 이후 갈등 상황에 놓일 때마다 가정교육, 출신국가의 수준을 비하하는 경험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의 정체성’을 스스로가 배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임을 묘사하였다.

“나는 한국문화 모른다.”, “뭘 배워왔노?”

이주 고려인의 문화 적응 실패는 곧 자기 정체성과 존엄성의 손상으로 연결되며, 이는 사회적 침묵, 감정적 회피, 실천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문화 적응은 결국 문화적 차이의 문제라기보다, 그 차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의 포용 능력의 문제임이 드러난다. 문화 적응은 동화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승인과 관계의 재구성이라는 점에서, 이주 고려인의 경험은 한국 사회가 다문화·초국가적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넘어야 할 결정적 경계를 드러내고 있다.

3. 정체성 협상과 세대 갈등

정체성 협상은 이주 고려인의 삶에서 가장 복잡적이고 역동적인 층위이다. 이들은 한민족이라는 상징적 민족성에 포섭되기를 기대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반복되는 타자화와 주변화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재구성하게 된다. 이주 고려인은 민족적 기원을 공유하는 ‘동포’로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한국 사회에서 언어, 문화, 제도, 정서적 소속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경계적 존재로 차별을 경험한다. 이 같은 정체성의 불안정성은 일상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제도 경험, 문화 실천을 통해 반복적으로 인식하며, 특히 세대 간 문화 사회화의 차이는 정체성 구성 양상과 방향에 영향을 미침을 설명한다. 본 주제로 이주 고려인의 정체성 협상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갈등 양상을 주요 분석 범주로 설정하고, 관련 연구인 남혜경·이미정(2016), 홍숙영(2017), 박신규(2020), 박신규·이채문(2021), 장안리·박미화(2022), 곽민정·함보연(2023)을 비교 분석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는 이주 고려인의 정체성이 단선적 민족 정체성에 의한 자동 통합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다양한 제도적·사회적 경험 속에서 혼종적(hybrid)이고 유동적인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홍숙영(2017)은 고려인이 ‘한국인’이라는 상징적 정체성과 현실의 이방인으로서의 인식 사이의 괴리를 통해 정체성 혼란을 경험한다고 분석하였다. 박신규(2020)는 일부 고려인이 ‘민족적 동질성’이라는 국가 담론에 반발하며, 오히려 개인 중심의 다중 정체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의 참여자인 3세대 고려인 청년은 다음과 같이 상황을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고려인’이라고 불리고,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인’이라는데, 나는 그냥 나인데 왜 이름을 자꾸 만들어야 하죠?”

이 발화는 정체성의 외부 규정성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자기 정체성을 재 정의하려는 능동적 주체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려인은 고정된 집단에 속하지 않고, 맥락에 따라 전략적으로 정체성을 수행하는 유동적 주체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이혜정과 황명진(2024)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다문화 학생’이라는 범주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들이며, 이 과정은 학교 내 정체성 압력과 가족 내 기대 사이의 긴장을 동반한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정체성이 귀속이나 선천적 특성이 아닌, 사회적 상호작용과 제도적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협상되고 재구성되는 문화적 실천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 연구 참여자 청년은 학교 내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진술하였다.

“선생님이 ‘너는 한국인인데 왜 이렇게 말을 못 하나’고 말했어요. 저는 저대로 살아왔을 뿐인데, 항상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러한 진술은 교육 현장에서의 문화 동화적 기준과 낙인 작용이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을 잘 보여준다. 해당 연구는 이러한 경험이 단순한 ‘적응의 어려움’이 아닌, 제도적 시민성의 위계 구조와 연동된 정체성 억압의 결과임을 해석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체성 협상과 세대 갈등에 대한 연구들은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분석 대상의 연령, 정체성 수행의 맥락, 또는 이론적 관점에 따라 차별화된 시각을 제시하고 있었다. 남혜경과 이미정(2016)은 직장 내 청년 고려인을 중심으로, 직장문화 적응 과정에서의 정체성 수행이 개인 내 갈등보다 또래 및 상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조절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의 조직 문화의 중요 요소인 ‘상하관계’는 조직의 가치를 공유하는데 있어 타자화 됨을 지적하였다.

“아마 가장 큰 차이는 나이에요. 그것만 너무 불편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회사원이고 부장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꼭 말씀대로 해야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김춘수와 김정수(2023)의 연구에서는 세대별 언어 사용과 자기 정체성 인식에 대한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한 연구 참여자는 상황적 정체성 구성과 이중 언어 전략의 병행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있었다.

“집에서는 러시아말 써요. 한국어는 학교랑 아르바이트할 때만 쓰죠. 나는 둘 다

필요해서 그래요”

한편 이혜정과 황명진(2024)은 고려인 청년의 경험을 분석하며 본인의 의지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여 고되지만 보람찼던 유학생생활 이후 직장 생활에서 문화 차이로 볼 수 있는 세대 차이를 겪게 되면서 이상적인 존재였던 한국이 혐오의 대상이 된 점을 상기하였다.

“회사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한국이 너무 미웠어. 동료와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한국은 15일 밖에 쉬지 못하고,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아. 한국은 왜 이래?”

남혜경과 이미정(2016)의 연구는 가족 간의 세대 차이 경험이 드러나는데, 이는 가정 내의 갈등 요인이 됨을 인용을 통해 나타내었다.

“애가 한국 문화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우리 집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자녀 세대는 학교와 사회에서 ‘한국인 되기’를 강요받으며, 부모 세대와의 문화적 유산을 단절하거나 거리두기하게 된다. 이는 정체성의 세대 간 전이 단절과 심리적 단절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정체성 협상의 과정은 정치적, 제도적, 감정적 층위가 교차하는 다차원적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주 고려인은 고정된 민족 범주에 갇히지 않고, 사회적 맥락에 따라 ‘고려인’, ‘러시아 한국인’, 또는 ‘디아스포라’ 등의 다중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이주 고려인의 정체성은 한국 사회의 국민 국가적 동질성 논리에 편입되지 않는 경계적 정체성이며, 이는 단지 개인적 혼란 상태를 넘어서 사회 구성적 긴장의 구조화된 양상으로 작동한다. 이들의 정체성 협상은 민족적 기원에 의한 동화를 전제하는 통합 정책의 한계에 맞서, 개인·집단·제도 간 상호작용 속에서 능동적으로 정체성을 교섭하고 재정의하는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세대 간 차이는 단순한 문화 이해도 차원이 아니라, 정체성 구성의 자원, 수행 방식, 인식 구조의 차이를 동반하며, 이는 가족 내 정체성 충돌, 문화 해석의 불일치, 교육·진로에 대한 태도 차이로 현실화되고 있었다. 정체성은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선택적으로 인식하며(Butler, 1997),

이주 고려인은 ‘민족’, ‘시민’, ‘가족’, ‘노동자’ 등의 교차적 범주를 전환하며 자기 위치를 탐색하고 있었다.

4. 초국가적 삶과 재 이주성

본 영역은 초국가적 삶의 실천, 정서적·사회적 소속의 다중성, 재이주의 가능성 등 이주 이후 삶의 유동성과 연속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이은정(2015), 박신규(2020), 임영상 외(2020), 박신규·이채문(2021), 이혜정·황명진(2024) 문헌을 활용하였고, 공통적으로 이 연구들은 이주 고려인이 경험하는 공간적 이동성과 정체성 구성의 교차성을 다양한 맥락에서 조명하였다.

이주 고려인의 이주는 물리적 ‘복귀’ 그 자체로 정착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 연구에서 이주 고려인은 출신국과 모국 사이에 물리적·정서적·문화적 연결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 간 경계를 넘나드는 초국가적 삶의 양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박신규(2020)는 고려인이 고정된 민족 정체성 대신 유목적 정체성(nomadic identity)이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이주 이후에도 다양한 이주 경로와 정체성 실천이 가능함을 보여줌을 주장 하였다. 또한, 다수의 고려인이 구체적인 이주 계획 없이 가족이나 지인의 이주에 편승하려는 경향이 이들의 유목민적 이주 성격을 실현한다고 부연 설명하였다.

“저는 원래 한국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는 처음에 회사랑 약속하고 왔어요. 엄마는 그냥 아빠 따라 왔어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전문대 졸업하고 1년 아무 것도 안하고, 부모님 전화 와서 한국에 와, 여기 공부 좀 하자 이렇게 왔어요.”

이은정(2015)은 고려인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혼종적인 문화 속에서 조혼으로 인한 다수의 이혼 사례와 자녀 양육을 위한 이주의 사례를 설명하며 가족 간의 이산이 경제 활동 목적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자녀를 본국에 두고 왔기 때문에 초국가적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설명하였다.

“고려인들은 2-3살 차이 혹은 동갑끼리 결혼 하니까 그래서 잘 살지 않거든요. 제 친구 중에서 안타깝게도 연애결혼 했지만 결국엔 이혼한 사례가 많아요. 애기 낳

고 헤어지고 이혼하고, 남편은 돈 안주고 친구가 키워요. 아이가 있으면 재혼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한국에서 와서 일을 하고, 애기는 엄마한테 동생한테 맡기고 자기가 한국에 와서 일하고.”

그녀의 연구에서 또한 한 여성 참여자는 물리적 정착과 정서적 소속감 사이의 괴리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 살지만, 엄마는 아직도 우즈베키스탄 소식을 매일 찾아봐요. 우리는 여전히 그곳 사람 같아요.”

이는 이주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이동과 감정적 병존 상태를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초국가적 삶에 대한 해석은 연구의 분석 대상, 지역 맥락, 초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임영상 외(2020)는 안산·시흥 지역에서 고려인 가정이 출신국의 교육 자원과 제도를 여전히 활용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 전략으로 양국 시스템을 병행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한 가정은 자녀 교육을 위해 출신국의 학제와 연계한 교육 전략을 선택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러시아식으로 받고 싶어서 한국 학교와 병행해요.”

그러나 광민정과 함보연(2023)은 차세대 이주 고려인의 정체성을 한국인의 정체성, 초국적 정체성으로 구분하여 출신국과 모국의 정체성을 양립하는 다면적 정체성을 주장하였다.

“저희도 이제 한국인이잖아요. 부모님도 한국인이고.”

“러시아 갈 때 한국에서는 공항에서 한국 여권으로 통과하고, 러시아에 내리자마자 러시아 여권 갖고 통과하고 또 한국 들어올 때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고.”

이주 고려인은 단일 국가 정체성에 정착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 국가, 지역, 문화, 제도 사이에서 관계망을 유지하고 선택적으로 삶을 조정하는 초국가적 주체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혜정과 황명진(2024)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물리적 공간과 정서적 공동

체가 분리되어 있는 다중 소속 상태를 지적하면서 이들의 정신적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연결(tie)의 차이가 결국 공간 이동적인 상황을 지속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였다.

“러시아 소셜네트워크 커뮤니티에서 친구들과 얘기해요. 한국 친구들보다 거기 더 편해요”

글릭 실러 외 (Glick Schiller et al., 1992)는 이민자의 물리적 거주와는 별도로 정서적·경제적 소속은 여전히 출신국에 분산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동시성(simultaneity)은 이주의 의미를 단일한 ‘돌아옴’이 아닌, 계속되는 ‘다중적 삶의 협상’으로 재 정의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초국가적 삶은 정체성 구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며, 출신국의 문화 자산을 여전히 삶의 일부로 유지하거나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주 이후의 삶을 보다 능동적으로 조율하게 만든다. 이는 이주 고려인이 ‘완전히 한국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문화·제도적 조건과 맞물린다고 볼 수 있다.

5. 지역사회와 통합의 조건

이 주제는 지역 공동체 기반의 정착 조건, 지자체의 정책 역량, 공공-민간 협력 인프라 구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김재기(2014), 임영상 외(2020), 박신규·이채문(2021), 서대승(2022), 장안리·박미화(2022), 광민정·함보연(2023)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연구는 이주 고려인의 정착 경험이 국가 정책보다는 지역의 수용성, 제도 실행력, 민간 네트워크 역량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다.

김재기(2014)는 광주 사례에서 행정적 무관심과 정책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해 정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교육 기관의 낮은 대처 능력과 무관심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

“고려인 자녀들을 받아줄 교육기관이 없어 고교 진학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 만 18세가 되면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곽민정과 함보연(2023)은 지역 간 정책 불균형이 통합의 질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지역주민과) 서로 인사하고 그래요. 우리가 말 표현 하는 것도 저쪽에서 말하는 것과 이해 안 돼요. 우리가 러시아 문화를 많이 가졌어요.”

그러나, 임영상 외(2020)는 안산·시흥 지역의 커뮤니티 기반 이중언어 교육과 민간기관 주도 정책의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였고, 박신규와 이채문(2021)은 경주 지역 고려인 공동체가 지역사회와 단절된 ‘사회 내 사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을 토로함을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한국어를 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어 무료로 하는 기관도 많지 않고, 교육하는데도 잘 몰라요.(중략). 우리 같은 연령층은 어디에 다녀야 하는지. 언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 우리 같은 나이는 다문화센터 이런 데는 우리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서대승(2022)은 사회경제적 자원 보유 여부가 지역사회 통합의 양상을 계층적으로 분화시키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주 고려인의 지역사회 통합은 단순한 수용 여부가 아니라, 공공성과 자조성, 경제력과 제도력, 그리고 커뮤니티 역량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지역 간 정책 편차는 국가적 수준의 통합 담론을 현실에서 분절시키며, 특히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고려인의 경우, 지역 커뮤니티가 사실상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설계의 중심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이주 고려인의 한국 정착 경험을 주제로 한 2010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국내 질적 연구 13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메타에스노그래피(meta-ethnography)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이주 고려

인의 정착 경험은 ① 제도적 경계와 법적 불안정성, ② 문화 적응과 주변화, ③ 정체성 협상과 세대 갈등, ④ 초국가적 삶과 재이주성, ⑤ 지역사회와 통합 조건의 다섯 가지 범주로 도출하였다. 분석 범주는 [표 4]와 같다.

[표 4] 주제별 교차 분석 표

논문번호	연구자	제도	문화	정체성	초국적	지역사회
1	김재기(2014)	●				●
2	이은정(2015)			●	●	
3	남혜경 · 이미정(2016)		●	●		
4	홍숙영(2017)		●	●		
5	김나경 · 선봉규(2018)	●	●			
6	박신규(2020)	●		●	●	
7	임영상 외(2020)		●		●	●
8	박신규 · 이재문(2021)	●			●	●
9	서대승(2022)					●
10	장안리 · 박미화(2022)	●				●
11	곽민정 · 함보현(2023)	●	●	●	●	●
12	김춘수 · 김정수(2023)	●		●	●	
13	이혜정 · 황명진(2024)		●	●	●	

이전 연구들은 이주 고려인의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박신규, 2020), 문화 적응의 어려움(홍숙영, 2017), 언어 장벽과 제도 접근성의 한계(김나경 · 선봉규, 2018), 그리고 정체성 혼란과 가족 내 갈등(이혜정 · 황명진, 2024) 등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와 상당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고려인의 경제적 존재성, 주변화된 시민성, 구조적 소외 경험 등을 종합화 하고자 하였다. 기존 이주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 논문인 곽민정과 함보현(2023)의 연구는 이주고려인과 사할린 동포를 다룬 6편의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연구 대상을 고려인 20대부터 60대, 사할린동포 70대를 다뤄 연구 대상의 다양성에 있어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의 핵심 범주는 이주 이주 동기, 사회경제적 어려움, 사회 인프라 취약, 지역사회 활동, 정체성을 주제로 다룬 연구임에도 고려인 집거지인 안산, 인천, 경주에 한정하였고,

사할린 동포는 전국을 다룬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광주 고려인 집거지를 다룬 연구를 추가하여 표집의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이주 고려인 대상 질적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실질적인 거주민의 현상을 다룬 연구로서 그들의 생활 사회를 보다 더 생생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착을 하나의 종결된 과정으로 전제하는 서사적 구조에서 벗어나, 이주 이후에도 지속되는 제도적·사회적 경계화의 역동을 중심으로 이주 이후의 삶을 ‘지속적 협상의 과정’으로 재 개념화하였다. 이는 이주를 민족주의적 통합 담론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비판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둘째, 기존 연구들이 특정 세대에 국한되어 경험을 분석한 데 반해, 본 연구는 세대 간 정착 양상의 차이와 가족 내 갈등 구조를 통합적으로 다룸으로써, 정체성의 세대 간 협상과 문화 전이의 역동성을 분석의 핵심 범주로 제시하였다.

셋째, 일부 연구에서 주변적으로 언급되었던 ‘재이주 가능성’이나 ‘초국가적 감정 공동체’의 존재를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범주로 독립시켜, 이주-정착-재이주라는 유동적인 이주 경로를 통해 고려인의 삶을 초국가적 관점에서 재조망하였다. 이는 이주 고려인이 단일한 국가 공간 안에서 통합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복수의 정체성과 연결성을 실천하는 경계적 시민이라는 인식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이주 고려인의 정착 경험을 통해, 시민성(citizenship), 통합, 민족 정체성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고려인의 법적 지위, 문화 적응, 언어 능력, 제도 접근성 등은 단지 사회적 자원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공동체 내부의 위계와 제도적 경계선을 드러내는 핵심 지표로 작용한다. 이들은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거나 제한된 권리를 가지면서도, 사회적 실천을 통해 정치적 주체성을 구성하는 경계적 시민(boundary citizen)으로 기능한다.

또한 이주 고려인의 재이주 가능성과 초국가적 소속감은, 기존의 통합 중심 정책 논리가 얼마나 정부 기반의 고정된 시민성을 전제하고 있는지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게 만든다. 이주 고려인의 존재는 단지 통합이 필요한 집단이 아니라, 국가 중심적 통합 담론이 갖는 이념적 한계를 드러내는 거울로 기능함을 이해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주 고려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첫째, H-2 및 F-4 체류 자격과 같은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안정적인 사회권 보장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재외동포와 관련된 비자는 시기에 따라 개정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비자의 통일성을 강화하여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거주 여건을 개선해야 필요성이 있다. 둘째, 언어 및 문화 적응을 위한 세대 맞춤형 통합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상담·진로 연계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고려인의 집거지와 소외 지역 간 정책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 간 조율 및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이주 고려인의 초국가적 소속성을 인정하고, 디지털 기반의 연결망 지원 및 다언어 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고가영. “설립자가 있는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의 발전 단계별 특성과 한계.” 『역사문화연구』 제92권 (2024).
- 권윤주. “한국 미디어의 다문화 청소년 재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 곽은혜, 오영섭. “국내 이주민 밀집지역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이해관계자들의 문제의식과 실태, 대안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제17권 3호 (2024)
- 김경학. “국내 고려인 아동의 국제 이주 경험과 초국적 정체성: 광주광역시 고려인 아동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24권 2호 (2018).
- 김기영. “중도입국청소년의 경계경험과 중층적 정체성: ‘고려인’ 청소년들의 삶이 야기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0권 3호 (2021).
- 김나경, 선봉규. “한국 거주 고려인동포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광주광역시 고려인 마을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제13권 (2018).
- 김미정, 신우봉. “고려인 청소년 및 청년들의 한국어 인식과 태도 연구 -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거주자를 중심으로 -.” 『한국언어문학』 제126권 (2024).
- 김재기. “광주 광산구 고려인의 이주배경과 정착 특성” 『재외한인연구』 제32권 (2014).
- 김춘수, 김정수. “고려인 이주 동포의 민족정체성 연구 -3~4세 이주동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현안과 담론』 제22권 (2023).
- 김춘수, 이윤주.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의 F4-R 비자와 지역 정주- 경상북도 영천지역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제67권 (2024).
- 김태원. “게오르그 짐멜의 이방인 이론과 상호문화.” 『인문사회 21』 제8권 2호 (2017)
- 나장함. “질적 메타분석에 대한 고찰.” 『교육과정연구』 제26권 4호 (2008).
- 남부현, 박미숙. “고려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생태체계 속 삶의 적응 모습 : 지역사회 회교사 경험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1권 2호 (2022).
- 박미숙, 남부현. “고려인 영유아 부모의 자녀돌봄 경험에 관한 연구.” 『콘텐츠와산

- 업』 제7권 1호 (2025).
- 남혜경, 이미정. “한국거주 고려인청년의 문화적응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인문사회 21』 제7권 3호 (2016).
- 박신규. “이주 재외한인청소년의 유형별 이주특성과 정체성 형성 분석: 중국 조선족과 고려인 출신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제14권 1호 (2020).
- 서대승. “고려인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분화에 따른 한국사회 편입 방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15권 3호 (2022).
- 선봉규, 파르피에브 스톰. “한국에 귀환 이주한 고려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제9권 5호 (2018).
- 신예원, 김지아, 마동훈. “디아스포라로서 고려인에 대한 비판적 담론연구: 2000년대 이후, 고려인 사설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제31권 1호 (2023).
- 윤병석. “해외동포의 원류.” 집문당. (2005).
- 이남주, 권정아. “국내거주 고려인 부부들의 적응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18권 3호 (2017).
- 이상근. “러시아·중앙아시아 이주한인의 역사-고난을 극복하여 희망을 성취하기 위한역사,” 『국학자료원』 (2010).
- 이선미. “국내 거주 고려인 기혼 남녀의 가족건강성과 삶의 질.”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8권 3호 (2019).
- 이은정.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이주이주-대구지역 고려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8권 1호 (2015).
- 이주연, 최지훈. “재외동포 정착지원 및 지역특화형비자 확대 방안 연구.” 『정책연구』 전북연구원. (2024).
- 이혜정, 황명진. “고려인 청년의 귀환 이주 후 재정착과정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18권 2호 (2024).
- 임영상, 림학, 주동완. “경기도의 ‘이주’동포사회와 한국살이: 안산시와 시흥시.” 『재외한인연구』 제50권 (2020).
- 전용일, 이민영, 고선윤, 손동희, 서효진, 김호정, 정해철. “외국인취업비자제도 고용영향평가.”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2017).
- 장안리, 박미화. “고려인 가족단위 이주자들 중심의 지원정책 연구: 함박마을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제15권 2호 (2022).
- 정유진, 유수빈, 서은숙. “고려인 중도입국 청년의 내러티브를 통한 사회 적응과

- 정체성 형성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3권 3호 (2024).
- 정진아. “국내 거주 고려인, 사할린 한인의 생활문화와 한국인과의 문화갈등.” 『통일 인문학』 제58권 (2014).
- 채영란, 박한아. “국내거주 고려인 아동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유라시아연구, 21(1), 135-148. (2024).
- 최아영.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공적 네트워크: 안산시 고려인 밀집 거주지역 사례 연구.” 『슬라브학보』 제39권 4호 (2024).
- 홍숙영. “고려인의 이주와 이주의 내러티브 탐색.” 『다문화사회연구』 제10권 2호 (2017).
- 홍응호, 반병률, 윤상원, 보이코, 영 드미트리, 한 발레리, 트로야코바, 송잔나, 니콜라이 부가이. “러시아지역 해외한인연구II.” 도서출판 선인 (2019).

영문자료

- Atkins, S., Lewin, S., Smith, H., Engel, M., Fretheim, A., and Volmink, J.,. Conducting a meta-ethnography of qualitative literature: Lessons learnt. *BMC Medical Research Methodology*, vol. 8, no. 21 (2008).
- Baldassar, L. *Visits Home: migration experiences between Italy and Australia*.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ress. (2001).
- Berry, J. W.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vol. 46, no. 1 (1997).
- Castells, Manuel. *The Power of Identity: With a New Preface*, Wiley-Baackwell. (1997).
- Cerese, F. P. Expectations and Reality: A Case Study of Return Migration from the United States to Southern Italy,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8, no. 2 (1974).
- Christou, A. *Narratives of place, culture and identity: Second-generation Greek-Americans return “home”*,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06).
- Glick Schiller, N., Basch, L. and Blanc-Szanton, C. *Towards a transnationalization of migration: Race, class, ethnicity and nationalism reconsidered*. The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vol. 645 (1992).
- Hall, S.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In J. Rutherford (Ed.), *Identity:*

- Community, Culture, Difference*. London: Lawrence & Wishart. (1990).
- Levitt, Peggy and Glick Schiller, Nina. Conceptualizing Simultaneity: A Transnational Social Field Perspective on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004).
- Lamont, M., and Molnar, V. The Study of Boundaries in the Social Scienc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8 (2002).
- Lincoln, Y. S. & Guba, E. G. (1985). *Chap. 11 Establishing Trustworthiness, in Naturalistic Inquiry*, 289-331,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Ludvigsen, Mette, Hall, Elisabeth, Meyer, Gabriele, Aagaard, Hanne and Uhrenfeldt, Lisbeth. Using Sandelowski and Barroso's Meta-Synthesis Method in Advancing Qualitative Evidence.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 26 (2016).
- Noblit, G.W. and Hare, R.D. *Meta-Ethnography: Synthesizing Qualitative studies*, Sage Publications, Newbury Park. (1988).
- Sandelowski M., Barroso J. and Voils CI. Using qualitative metasummary to synthesiz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escriptive findings. *Res Nurs Health*, vol. 30, no. 1 (2007).
- Thomas, J., Harden, A. Methods for the thematic synthesis of qualitative research in systematic reviews. *BMC Med Res Methodol* 8, vol. 45 (2008).
- Ting-Toomey, S. *Communicating across Cultures*, The Guilford Press, New York (1999).
- Tsuda, T. Acting Brazilian in Japan: Ethnic Resistance among Return Migrants. *Ethnology*, vol. 39, no. 1 (2000).
- Tsuda, T. *Strangers in the ethnic homeland: Japanese Brazilian return migration in transnational perspectiv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 Walsh D and Downe S. Meta-synthesis method for qualitative research: a literature review. *JAdvNurs*, vol. 50, no. 2 (2005).
- Zimmer, L. Qualitative Meta-Synthesis: A Question of Dialoguing with Tex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53 (2006).

신문기사

경기일보, 2025.1.4., 언어·문화 장벽 허물고... 함박웃음 가득한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

남도일보, 2022.9.2, 광주고려인마을 우크라이나 난민보고서(9)인천 함박마을 이중언어교육.

오마이뉴스, 2024.3.3, 일제에 이주당한 할아버지의 조국으로..“여긴 희망이 있어
요: 우리가 꿈꾸던 고향, 인천. 고려인 후손들의 새로운 터전, 함박마을.

BBC NEWS 코리아, 2024.7.3., 전교생의 80%가 다문화학생, 초저출생 한국에서
이미 시작된 미래.

인터넷 자료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국제협력국 다문화 사회과. 2023.11.9.

Abstract

A Qualitative Meta-analysis on the Settlement Experiences of Repatriated Koryo-saram

- Focusing on the Intersections of Institutional Boundaries,
Identity Negotiation, and Transnational Lives -

Jihye Son · Bu-Hyun Nam

This study performs a qualitative meta-ethnographic analysis of the settlement experiences of repatriated Koryo-saram—ethnic Koreans from the former Soviet Union—who have migrated to South Korea since the 1990s. Although legally recognized as “ethnic compatriots,” many Koryo-saram experience systemic marginalization due to precarious visa statuses, exclusion from state welfare systems, and limited access to education and public services. By synthesizing 13 qualitative studies published between 2010 and 2025, this research identifies five key thematic categories that illuminate the complex realities of their resettlement: (1) Institutional boundaries and legal insecurity, highlighting the bureaucratic obstacles and fragile residency conditions; (2) Cultural adaptation and marginalization, addressing linguistic challenges, social prejudice, and difficulties assimilating; (3) Identity negotiation and intergenerational conflict, exploring tensions between cultural heritage and post-Soviet influences across generations; (4) Transnational lives and re-migration, revealing ongoing mobility and diasporic connectivity; and (5) Local community and integration conditions, emphasizing uneven access to support structures and the critical role of municipal initiatives.

The findings reveal that repatriation for Koryo-saram is not a linear return to a cultural homeland, but a multifaceted, ongoing process shaped by legal ambiguity, cultural dissonance, and fluid identity formation. Conceptualizing Koryo-saram as

손지혜 — jihyeson@sunmoon.ac.kr

/ 관심분야: 재외동포, 차세대, 사회통합, 여성 이민, 초국가적 이주

남부현 — namx0015@sunmoon.ac.kr

/ 관심분야: 다문화교육, 이주민 적응과 정착, 정체성, 사회통합

boundary subjects—simultaneously insiders and outsiders—this study reframes them as transnational agents actively navigating and negotiating their place within South Korean society. Policy implications include expanding stable residency rights, promoting bilingual and culturally responsive education, supporting family-based integration programs, strengthening digital diasporic infrastructure, and institutionalizing a national settlement strategy grounded in successful local practices. The study concludes by calling for further research using comparative, mixed-method, and postcolonial approaches to deepen understanding of diasporic settlement dynamics in East Asia.